



자궁 나팔관 촬영술

황경진 / 일산자생당 병원장

여성의 불임검사는 남성의 검사에 비해 종류가 훨씬 다양하고 또 검사받는 시기도 다양합니다. 이중 하나가 엑스레이를 이용하여 자궁과 나팔관에 이상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자궁 나팔관 촬영술(HSG)이란 검사법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방법이지만 자궁과 나팔관에 대해 많은 정보를 줄 수 있는 중요한 검사중 하나이지요.

상계동에 사는 정 여인(28세)은 결혼한지 2년이 넘었는데도 아직 아기가 없습니다. 워낙 내성적이고 부끄러움이 많아 병원에 가서 진찰받는 것조차 엄두도 못내다가 친정어머니 성화에 못 이겨 마침내 불임클리닉을 찾은 경우였습니다.

어찌나 몸을 사리는지 내진조차도 어려웠고, 촬영실에서는 도저히 사진조차 찍을 수 없도록 협조가 안 되었습니다. “이 검사는 힘들거나 아프지 않은 아주 간단한 검사”라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아예 고개를 숙이고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한 시간의 실랑이 끝에 겨우 촬영을 끝내고 나니 일하는 직원들이 먼저 지쳐 버리고 앞으로 이 환자를 진료 할 일이 솔직히 심란한 정도였지요.

그런데 한 달후, 그 동안 검사결과를 보기 위해 그녀가 병원에 왔는데 예전의 답답하리 만치 움추리던 모습은 간데 없고 활짝 밝아진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선생님, 지난번에 죄송했어요, 그런데 저 임신 한 것 같아요...” 하는 것이었습니다.

불임환자들 중엔 이처럼 아무런 치료도 안했는데 자궁 나팔관 촬영만 하고서도 자연히 임신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촬영에 쓰이는 조영제가 나팔관의 찌꺼기를 씻어 주면서 깨끗하게 청소해준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궁 나팔관 촬영술

은 불임 진단을 위한 방법이면서도 한편으로 불임 치료를 특특히 해 주는 방법으로 볼 수 있겠지요.

자궁 나팔관 촬영(HSG)은 조영제를 자궁 경관 내로 주입하여 찍는데 소요시간이 2~3분 정도 걸리고 검사에 따른 통증이 거의 없기 때문에 겁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때로는 자궁이 너무 심하게 후굴되어 있거나 경부가 많이 벌어진 경우엔 조영제가 잘 안들어가고 밖으로 흘러나와 버리기 때문에 자궁 감자로 잘 고정해 주어야 좋은 영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궁 나팔관 촬영술로 나팔관과 자궁 내막 이상 유무를 아는 것은 기본이고 어떻게 사진을 찍고 필름을 세심하게 보느냐에 따라 골반내의 염증이냐 근종, 기타 골반내 종양까지도 진단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진단방법이 됩니다.

따라서 조영제가 들어갈 때 느껴지는 저항감이나 퍼져나가는 양상을 자세히 보는 것도 보다 정확한 진단을 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검사시기는 대개 월경이 시작되고 5일 내지 7일째가 좋습니다. 이 시기엔 난자가 방사선에 안전하고 자궁내막이 증식하기 이전이므로 조영제 소통이 원활하여 좋은 영상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촬영 후에 조영제가 복강안으로 흘러 들어가 다소 하복부에 통증이나 뻣근함을 느낄 수 있지만 약간의 진통제를 항생제와 함께 복용하면 됩니다.

특히 임신을 방해하는 클라미디아 균을 치료하는데 좋은 효과를 보이는 독시 사이클린을 하루에 200mg씩 촬영 전후로 일주일 정도 쓰면 일석 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일산자생당 병원 0344)901-4000